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0호 [루게 제2201호]

주제 101  
(2012). 12  
8  
토요일  
음력 10. 25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1월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건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리건국 단장과 대표단성원들인 왕가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 왕효취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류결일 당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 부부장, 요중과 감찰부 부부장, 류홍재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리건국단장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진서를



과를 거들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시였으며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는 중국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이룩한 리론실천적경험과 성과들을 총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형제적중국인민이 습근평주석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인민생활을

전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쁘신 시기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대표단을 접견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 진행형통을 통보해드리였다. 그는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림방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 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

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다지고 훌륭하게 건설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이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강성국가건설사업 수행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보다 큰 성

더욱 향상시켜나감으로써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주의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전략적목표를 실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이날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평양인건사공장 준공

평양인건사공장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준공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일떠선 평양인건사공장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되었다. 평양인건사공장건설에서

빛나는 로적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일군들,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최영림 내각총리가 전달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공장을 돌아보았다.

장 지배인 김근식, 초급지명위원장 김용식, 로동자 체경희가 토론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공장을 돌아보았다.

#### 전국술, 기초식품전시회 진행

전국술, 기초식품전시회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각지 식료공장들, 성, 중앙기관의 생산단위들에서 내놓은 각종 술과 간장, 된장, 기름들이

평을 받았다. 30일 평양역전백화점에서 있는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해당한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은 해방직후부터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심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엄숙히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대단결 5대방침 등 공화국이 력사발전의 매 시기마다 내놓은 조국통일로선과 정책들은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자

#### 6.15 중국 지역위원회 성원이 주장

김정일장군님께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북과 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리명박 《정부》의 외세의존, 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선언리행의 길은 막히고 조선반도에는 화악만 짙어가고있다고 같은 규탄하였다. 같은 민족분렬의 역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같은 남조선당국이 공동선언리행에 저해되는 온갖 조치들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평양인건사공장의 내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이 외세의 위해 돌로 갈라져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온지도 어언 60여년을 헤아린다. 공화국은 해방직후부터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심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엄숙히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대단결 5대방침 등 공화국이 력사발전의 매 시기마다 내놓은 조국통일로선과 정책들은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

여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은 새 세기에 이르러 6.15자주통일시대를 안아왔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외신들이 《21세기 민족의 대이동》으로 서술한 북남사이의 폭넓고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들은 6.15시대를 통하여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이룩한 자랑찬 결실이다. 이러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

고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친미보수 집권세력이다. 이들은 력대로 우리 민족의 높아가는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두개 조》를 노리는 외세의 하수인이 되어 반통일대결책동에 나라의 분렬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과정에 우리 나라의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생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민족의 이질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통일을 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오만 기간의 민족분렬사로 인해 초래된 북과 남의 차이점보다 민족적동질성이 훨씬 더 크며 통일하려는 겨레의 의지와 노력이 한층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에 압도하고 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 대결과 분렬은 애국

로 될수 없다. 오랜 기간의 민족분렬사로 인해 초래된 북과 남의 차이점보다 민족적동질성이 훨씬 더 크며 통일하려는 겨레의 의지와 노력이 한층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에 압도하고 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리어금



# 장군님은 영원히 거레와 함께 계십니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누리가 피눈물에 잠겨있던 때가 어제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되어옵니다.

이역땅에서 아버지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늘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비보에 접하였으니 그때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님은 가진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누리를 밝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만수대의 높은 언덕에서시여 우리모두를 손저어 불러주고계십니다. 태양은 오늘도 북남삼천리를 비치고 세계를 밝힙니다.

지금도 저는 지난 4월 만수대 언덕에서 체험한 격정의 그 순간을 한생토록 잊을수 없습니다.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해외동포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만수대 언덕에서 거행된 백두산천출유인들의 동상제막식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제 곧 꿈결에도 그림던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비움게 된다고 생각하니 심장은 흥분으로 세차게 뉘뉘었습니다.

드디어 만수대언덕을 뒤덮은 경축의 꽃물결속에 제막포가 서서히 벗겨지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었습니다.

순간 《경애》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경축의 축포가 하늘땅을 뒤흔들며 터져올랐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이날이었습니까. 참가자들도 모두가 뉘오르러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었습니다. 눈물이 더욱 솟아올랐습니다.

얼마나 장군님이 그리우셨으면, 장군님 생전에 그의 동상을 세워드리지 못하였던 인민의 소원이 풀리게 된것이 그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눈물을 적시셨겠습니까.

사실 신문에 실린 글과 조국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오로지 수령님한분만을 높이 모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생각밖에 없었고, 위인의 력사는 통상이나 기념비로 빛나는것이 아니라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다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초강대강행군길에 걸신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두해전 조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하시



는 이날 8월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석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들이 살고있는 길림에도 오시었습니다.

영광의 그날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주석님의 동상앞에 서시여 주석님 해오신 항일의 피어린 나날을 그러보시는듯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고장에 모실 환회의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길림시의 동포들은 너무나 기뻐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한달음에 길림육문중학교로 달려간 저는 장군님의 따뜻한 체취가 어려있는 책상과 의자를 손으로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장으로부터 주석님의 동상을 잘 모시고 주변도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시었다는 그의 말씀을 전해듣고는 참고참았던 오열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황세일가는 일찍부터 절세위인들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속에 살아왔습니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저의 아버지 황백화와 언니 황귀현에 대해 감회깊은 추억도 해 주신 아버지주석님께서서는 1991년 4월에는 해외동포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저를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우리 황씨일가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제가 수십년세월 동포들과 같이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주석님의 동상을 더 밝고 환하게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해 온것도 주석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적으나마 보답할 일념에서였

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응당 할일을 했을뿐인 저에게 분에도 넘친 감사와 선물을 안겨주시고 주석님의 존함시계표창과 조국통일상도 수여하도록 해주셨을뿐 아니라 이렇게 또다시 높이 평가 해주셨으니 하늘같은 그 믿음 눈에 흠이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었겠습니까.

영광의 그날 저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짜이 만나뵈옵는 자리에서 우리 황씨가문의 축원의 인사를 꼭 올리리라 마음다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결을 떠나실줄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한달음에 조국으로 달려온 저는 장군님영전에 엎드려 이제 다시는 장군님을 뵈옵수 없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뭉클아올라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조국인민들도 영결의 거리에 떨쳐나와 장군님의 령구차를 가로막으며 《장군님, 가시면 안됩니다.》, 《한생을 바쳐 사랑하신 이 땅, 이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못 가십니다.》하며 곡성을 터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영 다시 뵈옵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장군님께서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만수대언덕에서시니 저는 너무나 꿈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닌 나라 인민이 우리 장군님의 환생을 가슴벅찬 환희속에 체험하였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안광은 오늘도 만민을 한품에 따듯이 안아 품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그대로였었습니다.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할 미래를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는 거룩한 그이의 안광을 우리들수목 신심이 넘치고 천백배로 힘입어 용솟음쳤습니다.

그날 저는 푹푹히 깨달았습니다. 민족의 아버지를 애라게 부르는 인민의 피절은 곡성이 차넘치던 만수대언덕에 장군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진 이 빛나는 현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조국방문시 제가 들은데 의하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주석님탄생 100돐을 맞으며 인민들이 것처럼 바라고 바라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훌륭히 건립하도록 그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었다고 합니다.

아버이주석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정화로운 세상에 높이 솟아 빛나는 성스러운 언덕에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여 장군님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는 조국인민들에게 태양의 영원한 모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볼수록 가슴이 후터웠습니다.

조국의 이름난 미술창작가지인 만수대창작사를 찾았을 때 저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동상건립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커다란 감동을 받

았습니다.

창작가들이 만든 동상형상안들을 여러차례 보아주시신 원수님께는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친근하고 인자하신 품모가 그대로 안겨오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으며 동상제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고 합니다.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절세위인의 태양의 모습을 하루빨리 안겨주시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동상건립현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세부적인 형상으로 부터 동상조형효과에 이르기까지 장군님이나 지도해주시였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총정과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은 불과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립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흔살가까이 살아오면서 저는 오늘 우리 조국에서처럼 세상사람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호모를 받고계시는 두분의 천출위인들의 태양의 동상을 높이 모신 경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하기에 저는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러르며 거레에게 영원한 태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올리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 주적인 삶, 행복만을 누려온 조국인민들은 장군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만수대언덕을 찾고있습

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언덕에서 찾아오는 조국의 남녘로 소와 우리 해외동포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속으로 아뢰이는 말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었다.

저는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몰라보게 전변된 평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만수대지구에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창천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과 인민극장, 특색있는 봉사시설들은 볼수록 회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만수대언덕에서 바라보이는 풍치수려한 대동강 한복판의 룡라인민유원지와 룡라물놀이장, 룡라곰둥어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은 그 얼마나 멋이 있고 그 건너편에 독특한 자태를 떨치며 일떠선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룡라스케트장에서 울려나오는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즐거운 것이었습니까.

이렇듯 훌륭한 명당자리에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지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가 일떠서게 된데도 깊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해외동포사업국의 한 일꾼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원래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건립하는 장소문제가 관련하여 여러가지안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들을 모두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장소는 만수대언덕만 한데가 없다고, 장군님의 동상은 아버지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건립

해야 한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평생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게 하시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총정과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다고 봅니다.

피눈물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심중은 줄곧 장군님께로 달려시었다고 합니다.

아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쌓이고 쌓일수록, 사랑하는 인민에게로 달리는 마음이 절절할수록 그분의 마음이 가닿는 곳은 언제나 만수대지구에 있습니다.

인민들을 위한 리상적인 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시어 그토록 마음쓰시고 로고를 기울이신 장군님의 동상을 이곳 만수대지구의 높은 언덕에 모시어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인민들이 늘 뵈옵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으신 뜻이라고 봅니다.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시려 낮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돌아보시며 만수대지구를 훌륭하게 건설하도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이십니다.

새로 일떠선 창천거리 살림집의 45층에까지 올라가시여 창문의 바람소리에까지 귀기울이시고 아동백화점을 찾으시여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신 주석님과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과 면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실 때, 완공당계에 이른 룡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룡라스케트장건설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실 때 그이께서 그러보신것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원, 유원지, 체육문화휴식기지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그토록 기뻐하실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시여 아버지장군님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만수대의 높은 언덕에 거연히 서계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날로 부강번영해가는 우리 조국의 오늘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환한 미소속에 축복 해주십니다.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잘 모시는 것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우리 해외동포들의 응당한 본분입니다.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출한 령도가 있어 강성부흥할 조국도 있고 무궁번영할 통일삼천리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비록 몸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의 만수대에 두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주석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겠습니다.

황진생(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부협회 회장임)

어느덧 연말이다. 한해를 돌아보는 감회는 자못 깊다.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 평평정절을 성대히 기념했고 나라의 강성명예와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창조와 건설에서 눈에 띄는 일들이 여느때없이 많았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발걸음을 애국총정의 발걸음으로 따르며 조국청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

정초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주제105명크사단을 헌지시찰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 한해를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보내셨다. 조국수호와 강성부흥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달과 달을 이으셨다.

그이께서는 1월과 2월, 3월에만도 판문점과 초도방어대,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군부대들을 비롯하여 군 30개에 달하는 인민군부대

를 찾으시고 4월에는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러도 방어대를 찾으시여 인민군장병들에게 조국수호의 배짱과 의지를 북돋아주시며 조국강토를 금성철벽으로 지키도록 하셨다.

8월에는 목선을 타시고 조선반도의 최대열점지역인 서남전선의 섬방어대들인 무도

와 장재도를 시찰하시고 침략세력의 무분별한 도발로 공화국의 령도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진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원수님이시다.

전선동부에 대한 헌지시찰의 길에서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변

함없이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곳곳이 한길을 걸어나갈 굳은 마음을 포력하시면서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 것이라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들어잡자고 호소하시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곧

뜻이고 의도이다. 최첨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의 건설들이 준공을 선포하고 생산장소의 동음을 높이 울린 평양양말공장을 비롯하여 경공업생산기지들에서 물질적부가 늘어나는 속이 평양의 창천거리, 룡라인민유원지와 같은 문화적재부들도 수없이 마련

되었다.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한 새 창조물들에는 인민의 리의를 최우선, 절제하고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이바지하도록 령도와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핌이 깃들어있다.

운명을 잘하여 이곳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신 그이의 당부가 통일거리운동센터의 설비와 기재들에 어려웠고 녀성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이 덕을 볼 그날을 그려보신 그이의 환한 미소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비껴있는것이다.

그이께서 헌지도하신 수십여개에 달하는 단위들마다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로고가 새겨졌다.

세계 인민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5년전 조선민족사에 또 한분의 위대한 민족적영웅, 절세의 애국자로 기록될것이다. 그이를 모시어 조선에 황금시대가 도래할것이라고 하였다.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영원한 우리 태양 김정일동지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제 101(2012)년 12월 17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사기자

# 동족대결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한 2012년

《임기는 있고 인기는 없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지난 5년간 리명박의 《정권》을 줄곧 따라다닌 말이다. 한것은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광고하며 발췌한 《실용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선》으로 시종 파쇼적인 억압통치만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하여 벌써 리명박보수당국의 집권 3개월만에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탄핵》운동이 온 남조선 땅을 휩쓸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이 아니라 보수 《정권》의 기만적정책과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격노한 민심의 분출이었다.

남조선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3개월도 못되어 이처럼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져들것은 남조선의 역대 《정권》 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리명박 《정권》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거리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사상 류례가 없는 과격으로 몰아넣었다. 6.15공화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발표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환희로 부풀었던 겨레의 꿈이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당국의 집권으로 하루아침에 찬서리를 맞았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민족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가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며 6.15의 성과들을 악랄하게 유린, 말살했다. 그들이 《대북정책》으로 표방한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자체가 북남관계매체선언, 반공화국대결선언이었다. 그

들은 《비핵, 개방, 3 000》에 립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허위하며 북남관계에서 동족대결의 광풍을 어지럽게 일으켰다. 심지어 리명박보수 《정권》은 련일 거리를 짝 메우며 벌어졌던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탄핵》운동에 대해서도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 《배후조종》으로 둔갑시켰고 시위참가자들을 《친북세력》, 《빨갱이》로 몰아 무차별적인 폭행과 탄압을 가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2012년에 들어서서도 남조선보수당국은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날과 달을 보내왔다. 남조선집권자는 새해초 《신년국경특별연설》에서 북의 《핵관련활동 중지》니, 《도발시 강력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변함없는 동족대결홍심을 다시금 드러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고 북남대결감정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 올해 《중북협력정책》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는가 하면 《탈북자 북송중지》니, 《북인권》이니 하며 전례없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일으켰다. 그뿐아니라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

와 관련해서도 《미사일발사강행》이니, 《고립자초》니, 《중대한 도발행위》이니 하고 길고들며 여론화했다.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국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질렀던 친화책들의 무리들은 올해에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거침없이 저질렀다. 온 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거행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에 대해서도 《찬치비용》이 워우 하면서 온갖 못된 소리를 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심판을 위해 펼쳐 나선 남조선인민들

이제 남조선에서 리명박 《정권》과 같은 친미보수, 반통일대결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면 북남관계에서 지난 5년간의 악몽이 되풀이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고 남조선에서 민주개혁 《정권》이 서게 되면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도 실현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며 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열어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리명박보수 《정권》은 이제 북남관계에서 아무런 실적도 없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현 북남관계과국의 기본요인

은 바로 남조선보수당국이 집권 5년간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된 《대북대결정책》을 추구해온데 있다. 오늘에 와서 《원칙》으로 포장된 리명박의 《대북정책》이 북남관계를 파란내고 6.15이전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국악무도한 반통일대결정책이며 동족대결로는 얻을것이 없고 전쟁밖에 초래될것이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로 되고있다.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며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반인민적악정과 특대형부정부패 등 집권기간 악행만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지금 리명박보수당국은 안락으로

진공력



## 반북 《인권》소동과 《상호존중》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난달 5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족통일성회복을 위해 학살,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남북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적극 장려해 상호리해의 폭을 넓히겠다.》, 《남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확대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새누리당》이 벌써 몇 년째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무전 애를 쓰는 《북인권법》이라는것은 《동족대결악법》, 《빠살포단체자금지원법》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 그가 자기의 공약에 《북인권법 제정》을 쫓아박고도 《협력》과 《교류》를 운운한것은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하게

된것이 현 남조선보수당국이 끈질기게 벌려온 《인권》소동과 관련이 없단 말인가. 인민이 사회와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인권은 최고로 존중되고 발전되고있다. 그러므로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할수가 없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세력은 집권후 오늘까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호리고 그를 내무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온갖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려왔다. 그런가하면 남조선당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여러차례나 공화국에 대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빠라살포행위를 부추기고 조종해온 남조선당국에 의해 앞마진 과주 시 립민각주들의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총포란이 오갈번 한 일 축축발의 정세가 조성되기 까지 했다.

사실 인권에 닳을 돌린다면 사람들이 집이 없고 일 자리가 없어 고생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남조선부터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제 집안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태에 대해서는 못본척 하면서 분계선너머의 《북인권》을 요란스레 떠들어대는것은 그 자체가 불순한 대결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 반북 《인권》소동은 《인권》의 간판을 단 동족대결, 체제대결소동에 따름이 아니다.

속에 칼을 품은채 입으로 《신뢰》, 《상호존중》을 부르짖어봐야 그 말을 끝이 들을 사람이 없다. 리명박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해나가려면 속에 품은 칼부터 꺼내놓아야 한다. 그 같은 동족을 덜어놓고 적대시하는 극도의 대결의식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북의 《대선개입》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 있다.

하다면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면서 《북인권법》까지 제정하겠다고 하는것은 《개입》정도를 훨씬 벗어난 《내정간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인권법》제정과 같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다.

최석현

북남협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일이다.

6.15시대에 북과 남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이바지하려는 열념으로부터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 북남관계에서는 6.15이전시기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리명박보수집단의 출현으로 북남협력사업은 하루아침에 뒤흔들려졌다. 원래 동족대결관념이 체제화된 리명박은 집권하기 전부터 북과의 협력이 《북의 정권에 단 한 톨을 실어주고 통일》을 더 멀게 한다.》니, 《남쪽의 내부갈등이 중폭되고 국민의 세상이 랑비된다.》니 뭐니 하는 못된 소리를 늘어놓으며 대결홍심을 어지럽히 드려냈다. 리명박은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보수언론들을 총동원하여 북남협력사업에 대해 《폐주》니, 《대북지원》이니 뭐니 하며 악선언에 열을 올렸다. 이와 함께 자기 심복들을 내세워 민간단체들의 북과의 교류협력진행과정을 모조리 도청, 감시하게 하였으며 지어 제3국에

## 북남관계의 파괴를 몰아온 원흉

### 북남협력에 빗장을 지르고

까지 그 축수를 뻗었다. 특히 남조선보수당국은 10.4선언에 밝혀진 북남협력사업들에 대해 《경제적라산》이니, 《국민적합의》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뒤흔들었다. 사실 서해평화협력지대창설과 관련된 북남협력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었다면 조선서해상에서 북과 남사이의 총포란이 오가는 험악한 사태

가 조성되지 않았을것이다. 보수패당은 《핵을 머리를 에 때이고서는 경제협력할수 없다.》니, 《협력이나 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지 말라.》니 하면서 얼도당도않은 《대북사업 4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북남협력사업

에 빗장을 걸었다. 그뿐아니라 도발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그 무슨 《5.24조치》라는것을 내놓아 민간접촉과 교류를 전면봉쇄하였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돈줄》이요 뭐요 하며 시비해오던 끝에 관광개시권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으며 남측기업들을 압박하고 물자와 인원, 차량의

## 《선거개입》은 누가 하는가

11월 29일 남조선의 집권자는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이 《대선을 앞두고도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고있다는 소리를 또다시 늘어놓았다. 《선거》가 다가오니 《북풍》을 또 썩먹으려고 지독히도 《북개입》설을 내몰리고있는 꼴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자 《북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는 괴상한 말도 하였다.

남조선에서 벌어질 《대통령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는것은 남조선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북이 편여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라는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리명박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되받아 웨치며 불신과 대결을 계속 조장하려는 행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것은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선거개입》이니 뭐니 하는것은 《북풍》을 조작하여 보수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교악한 술책이다. 북을 억지로 남쪽 《선거》와 련계시켜 《선거》판에 끌어들이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실용정부》이고 《새누리당》이다.

최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리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당선되기를 선호한다》는것을 암시하는것으로 해석될수 있어 《선거개입》론난을 낳을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극단한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과국의 낭떠러지에 몰아넣고도 모자라 《정권》이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이 시각까지도 동족을 모함하고 해치려드는 리명박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명금룡

파의 전략적동맹관계를 심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북과 남의 관계발전과 민심을 위만한 철저한 힘의 대결론, 외세공조론이라는것이 확연하다. 분렬후 오늘날까지의 력사는 동족대결의 힘의 론리와 외세공조가 평화를 지키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위험을 백배해 준

와서도 그 무슨 《람복자》니, 《공군포로》니 하면서 모략과 방책책동만을 일삼았다. 그들은 《선례와 집중》이니, 《북정권과 주민의 분리》니, 《군사전용》이니 뭐니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물자반출을 허용해주고는 그에 대한 철저한 현황확인까지 강요하였다.

현실은 리명박보수집단이 야말로 북남협력사업을 동족대결의 정치적목표물로 만들고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화에 몰도 없는 민족반역집단이라는것을 푹푹히 보여주었다.

지금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새누리당정권》의 북남협력차단책동을 《남북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애국은 국민들만 희생시키는 자해조치》, 《MB (정부는 살인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 시 남녘의 시인에게

리신일

서슬푸르던 《유신》 독재의 장막을 《오적》으로 갈같이 찢어발기던 그대 백발에 로망인가 그 《유신》 잔당들을 지지한다니 그대 마치 옛말속의 농부같구나 승냥이를 때려잡고 돌아서다 홀로 남은 새끼승냥이 애처로와 짐으로 데리고왔다는...

그대도 아마 알고있으리 명명미와 함께 자라느라면 승냥이분성 없어지리라... 그 미련한 농부이야기

어쩌면 그 농부와 그리도 신통한가 민주가 없으면 삶도 없다며 《유신》라고 웨치던 시인이 《유신》 잔당과 한울타리에 들었으니 이것이 그대 부르짖던 민주인가

《박정희기념관》에선 《유신》 망령 너털대고 그 잔당들 《새누리당》 탈을 쓰고 민주우에 다시 군림해보려 《국민행복》, 《긴급조치피해자특별법》... 그 거짓말장단에 춤을 추는게

그대 시인인가, 옛말속의 농부인가 정말 모른다 말인가 《새누리당》 무리 청와대에 등지들면 남녘인민 피땀 뺀아 제 족속 배불리고 남녘땅을 동족대결장으로 만들리라 는걸

오, 아직도 몸에 청청한 라오んの 독사같은 《유신》 체제자극 안고 《유신》의 시너된 가없는 시인이여 민주의 령혼들이 침을 뱉도다 유대의 월계관 없어주며

다는 쓰디쓴 교훈을 주고있다. 리명박집권의 5년, 이 시기 보수당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술한 미국제전쟁장비를 사주고 미국과의 《월맹》구축, 《한》미합동군사

## 평화와 안보의 길은 ...

연습 등으로 《대북정책》을 폈지만 도래한것은 총돌과 전쟁위험의 증대였다. 《역지력강화》와 외세공조는 전쟁밖에 초래하는것이 없다는것을 뼈부러 체험한 이남국

민이 《새누리당》의 《평화》공약에 도리질을 하는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평화의 해법은 없는가. 있다. 북과 남이 손을 잡

는것이다. 대국들의 리기적 전략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평화를 지켜나가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대결정책을 버

##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의 《대북정책》공약들이 리명박 《정권》의 대결정책과 조종도 다름없었다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지난 11월 25일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남대화의 재개》에 대해 표방하였다. 그러면서 《북남대화의 재개》가 《5.24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가 하고 생각된다. 《5.24조치》로 말하면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북과 억지로 련결시키고 이를 구실로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에 차단봉을 내리운 국

단한 반복폐쇄조치, 대결조치이다. 이것으로 하여 리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악화되던 북남관계는 완전과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대결은 최대로 격화되었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남조선의 많은 인사들과 단체들이 《5.24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반복대결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 해방이 제대로 재개될수 없다는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그러면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북과 대화도,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것이요,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공지에 물려있다.

2008년 5월 30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사실에서 리명박 《정권》을 《선량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누르려는 《정부》》라고 규탄하며 일제강치 이렇게 경고했었다.

《국민에 맞서고 국민을 힘으로 이기려는 《정부》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수밖에 없다.》

오늘날 리명박보수당국이 처한 어려운 처지는 저들 스스로가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위험을 막고 제2의 6.15시대, 새로운 평화변영의 시대를 마련하자면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이 종식되고 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최광혁



# 피땀 어린 혈세 누구에게 섬겨바치려나

지난 11월 28일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사회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국회》국방위원회라는 데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2013년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 《제주해군기지에선 날치기 통과됐는데 집권도 안해서 날치기가 이뤄진 것이다.》라고 규탄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정문앞을 차량으로 봉쇄하고 공사차량운행을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하였다. 《새누리당》의 이

번 제주해군기지에산안 강행처리가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지배전략에 따라 미군의 핵항공모함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미국은 이미전부터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것을 남조선에게 강박하여왔지만 남조선 각계의 거세찬 항의와 규탄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현 집권자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공약으로 내 놓고 집권하면서 추주선 각계의 거세찬 항의와 규탄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현 집권자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공약으로 내 놓고 집권하면서 추주선 각계의 거세찬 항의와 규탄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얼림수로 제주도과 《량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4월 착공하였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사회 각계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쳐 공사계획을 17%밖에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있다. 이에 당황한 리명박 《정권》은 누구든 공사를 반대하면 책임을 물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이에 항거해나서는 진보적인사람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공복세력》으로 몰아대고 공사현장에 경비함정 5척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살벌한 독압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계속 강행추진해왔다.

그 이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까지 포기하는 경우 집권공약으로 내 놓았던 모든 공약들이 물거품으로 되어 력대 《대통령》중에

서 아무런 《실적》도 남기지 못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될수 있을뿐아니라 당면하여 군부를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의 강한 반발로 집권총대부훈란이 심화되어 기가 어떻게 될수 있다고 본 데 있다.

그러나 기본목적은 의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봉쇄와 북침전쟁준비책들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안보》바람을 퍼뜨려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제집권을 이루어보자는 데 있다.

리명박 《정권》의 이러한 불순한 기도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통과》로 부채질함으로써 그들 역사의 집권세력과 함께 추악한 민족반역집단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그뿐아니라 《새누리당》이 떠드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란 제 집권을 위한 한갖 미사여구라는 것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에 수많은 전과되어 있는 미국의 핵기지도 부추하여 관광명승지로 알려진 제주도까지 상전의 핵전초기지로 섬겨바치는 리명박 《정권》과 그에 짝자궁이 하는 《새누리당》과 같은 극악한 친미주구, 전쟁하수인은 동서고급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돈을 상전의 침략전쟁기지건설에 서슴없이 탕진하는 현 보수집단과 같은 민족반역집단이 또다시 집권한다면 제주도는 긴장도가 높은 서해해상지역과 함께 북남사이의 또 하나의 대결장으로 될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본사기자 리광성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새누리당》을 가리켜 부르는 별호가 참 많다.

《강부자당》, 《성주행당》, 《차별기당》, 《공천장사당》, 《한밀천당》...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면 만사OK당》이라는 새 이름이 붙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백허전데 의하면 부산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어느 한 인물이 《새누리당》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돌아가는 길에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내가 지방공기업 사장이 임원으로 갈수 있다.》고 심중을 터놓았다고 한다.

《투표시간 2시간연장에 100억원이 드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라고 말하며 돈을 갖고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끝끝내 실현할수 없게 만들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번도 그런데 두번 투표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지 않는가 하는 립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다 돈으로 재어 보면서 반대해나서고 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금식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원을 낭비했다 (새누리당)이 이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본사기자 김련옥

## 돈이면 다 되는 당

세상에는 자기 계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形形色색의 당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돈이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것을 좌우명으로 하는 당이 존재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적을 따져놓고보면 별로 놀랄만 한것이 아니다.

지난 11월말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거액의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

키고 있다.

《강부자당》, 《성주행당》, 《차별기당》, 《공천장사당》, 《한밀천당》...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이름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돈이면 만사OK당》이라는 새 이름이 붙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 있다.

세상에는 자기 계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形形色색의 당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돈이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것을 좌우명으로 하는 당이 존재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투표시간 2시간연장에 100억원이 드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라고 말하며 돈을 갖고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끝끝내 실현할수 없게 만들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번도 그런데 두번 투표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지 않는가 하는 립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다 돈으로 재어 보면서 반대해나서고 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금식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원을 낭비했다 (새누리당)이 이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본사기자 김련옥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현 집권자에 대한 《손소리》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12월 2일 남강원도지역 《선거》유세에 나선 《새누리당》 후보는 《경계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도 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증시켜놓았다.》고 리명박당국을 《비판》하였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 역시 립일 《집권하면 제일 먼저 민생을 챙기겠다.》, 《리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책했다.》고 하면서 저들은 마치 현 남조선당국과 질적으로 다른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과의 《차별화》로 돌아선 남조선인심을 끌

어보려는 《새누리당》의 앞은수라고 하면서 조소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현 집권여당이다.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지난 5년간 리명박 《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적

이러한 실례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내든 공약들만 따져보아도 현 《정권》의 정책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현 집권여당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이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비계덩

《투표시간 2시간연장에 100억원이 드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라고 말하며 돈을 갖고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끝끝내 실현할수 없게 만들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번도 그런데 두번 투표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지 않는가 하는 립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다 돈으로 재어 보면서 반대해나서고 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금식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원을 낭비했다 (새누리당)이 이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본사기자

### 또다시 폭로된 검찰의 부정부패행위

3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검찰내에서 또다시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검사 조사를 받고있던 범죄혐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다

한다.

지금 검찰당국이 검찰부서들을 내세워 사건을 조사한다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부패무능한 리명박 《정권》 하에서 승승대포 썩은 저들의 정책은 그 무엇으로도 감출수 없다.

### 부패한 검찰관계자들의 퇴진을 요구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3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90여개 시민단체들이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관계자들의 전면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또한 이번이 폭로된 검찰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리명박이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신정당 신포》 대표인 스키 노부유기는 서울에 있는 《일본군성노예》 기념비에도 이와 같은 말뚝을 박아놓아 《말뚝레보》으로 지탄받은자이다.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본사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6일부터 조선반도에서의 《핵위기》시 남조선미국의 대응태도와 절차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확장억제운영수단연습》을 벌려놓았다.

이번의 연습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알라모스핵연구소》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도발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알려지다싶이 《확장억제운영수단연습》은 공화국에 대한 《맞춤식억제전략》에 따라 진행되는것으로서 《북핵위기》시 미국과 남조선이 여기에 《대응》하는 수단과 방법을 검토, 평가, 선택, 련마하는 연습이다.

다시말하여 조선반도 유사시 핵과 미사일, 비행기를 비롯한 현대적전쟁장비 등 들이밀수 있는 모든 군사적수단들에 대한 협의 및 사용절차방법을 미리 훈련하여 《만일의 대비태세》를 갖출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를 기회로 조선에서의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핵전제공격완성에 박차를 가하고있는것이다.

이 연습이 남조선미국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주관하에 벌어진다는것 하나를 보아도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남조선미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하고 내온것으로서 누구의 《핵위협》의 구실 밑에 미국의 핵우산과 첨단전쟁장비, 요격미사일체계 등 각이한 전쟁수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일종의 북침핵전쟁준비실행감시위원회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이 《확장억제정책위원회》운영계획서명성이란데서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대안마련》이 사명이

라고 떠든것자체가 이 위원회의 침략적정책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이번 《확장억제운영수단연습》이라는것이 칠두칠미 공화국에 대한 핵침략을 노린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연습이 북침핵전쟁연습이라는것은 미전략사령부가 주동이 되어 실시하고있다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전략사령부는 핵 및 재래식과 우주전쟁, 사이버전쟁, 요격미사일방위체계 등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서 써먹을수 있는 모든 전쟁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는것을 기본업무로 하는 침략전쟁사령부이다.

특히 미전략사령부는 《작전계획 8010》, 《작전계획 8099》등 공화국의 중요대상들에 대한 핵타격을 비롯한 북침핵전쟁계획들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인 세부까지 지휘통제하는 북침핵전쟁본영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자료들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난해 1차연습때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은 (한) 반도에서 핵전쟁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동북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우리는 (한) 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름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을 추진하는 남조선미국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은 거래는 삼천리를 폐허로 만들고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결단코 막아냄으로써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나가야 한다.

《최후의 만찬》의 대상이 되어 《대통령》자리를 내놓고 청와대를 나서면 곧장 감옥행을 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련관된 처와 아들을 비롯한 술한 《수행성원》들까지 거느리고...

그러니 미리 법무부에 부탁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라는 라산이다.

그렇다면 《당부》가 아니라 구걸이라 해야 맞을것이다.

청와대의 마지막 먹자판, 리명박의 집권말기의 가련한 신세를 보여주는 MB식 《최후의 만찬》이 아닐수 없다.

## 핵전쟁을 몰아오려는 장본인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배영일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민생은 돌봄이 없이 저들만의 배를 불리는 청와대만찬은 얼마전에 있었다.

주인인 리명박이 초창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모든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달라.》, 《그의 불안한 심정이 그대로 표현된 말이라 해야 할것이다.》

현재 리명박의 친형 리상득과 심부인 최시중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친인척, 심부들이 범죄자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저자신과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겠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러네트홈페이지에 《위안부상상은 매춘부상》이라고 모욕적인 동영상을 올려 이남조선인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하기에 이남의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 《일본군성노예》를 끄집어낸 할머니들은 이를 용서할수 없는 인권변호사, 역사외국법외로 단죄하면서 스즈끼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할것을 《정부》와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 초록은 동색

하지만 리명박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겨우 했다는것이 이자의 남조선출입을 금지시킨것뿐이다.

도리어 《말뚝레보》에 격분해 일본대사관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이남주민은 《외국공관침입죄》로 몰아구속하였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현 당국과 짝자궁이하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하였다.

지난 시기에 또 어머했는가.

일본왕을 《천황》으로 울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리명박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청와대택사관이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몇가지만 보자.

2008년 초콜시위진압장태들에게 먹자판을 차려준고 《포상금》까지 인겨준것, 2010년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심부들에게 《위도연》을 차려준것, 2011년 1 000여 만원을 들여 《동문회》라는것을 열었고 《자유총련맹》 패거리들을 거어들여 반 6.15 15억 6천만 원의 돈을 벌린것...

재중동포 박영주